



중앙과 지방이 함께 만드는 대체불가 대한민국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전재수 부산시장, 박찬대 인천시장, 추미애 경기도지사,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우상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등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전북, 생명·퍼지컬AI 제조 플랫폼

전북특별자치도가 그린수소와 첨단 로봇, 농생명바이오를 미래 3대 성장 엔진으로 확보하며 국가 성장전략을 이끌 새로운 산업 거점으로 도약한다.

전북자치도는 2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광역지자체장 등이 참석한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3대 메가프로젝트 연계 권역별 성장엔진 육성방안 을 보고·발표하고, 전북의 3대 성장엔진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전북의 성장엔진은 △그린수소 플랫폼 △첨단로봇 파운드리 △농·생명 바이오다.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과 연계해 전북을 차세대 생명·퍼지컬AI 제조산업 플랫폼으로 육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발표는 단순히 정부의 산업지원 대상에 포함된 것을 넘어, 전북이 그동안 축적해 온 농생명과 탄소소재, 재생에너지, 미래 모빌리티 등 산업기반과 기업 투자여량을 국가 성장전략 차원에서 인정받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

그린수소 플랫폼은 새만금과 전북의 풍부한 재생에너지 기반을 활용해 수소의 생산·저장·운송·활용을 연결하는 전주기 산업생태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풍력·태양광 기지재와 수전해 시스템, 차세대 수소저장용기, 수소모빌리티를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특히 기업투자와 연계한 수소 생산 기반 구축을 통해 전북의 재생에너지 산업을 단순 발전 중심에서 그린수소 생산과 첨단산업으로 확장하는 새로

그린수소·첨단로봇 파운드리·농생명 바이오 등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3대 성장 엔진 최종 확정

7대 지원 패키지 연계 투자·일자리·체감성장 본격

운 산업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첨단로봇 파운드리라는 제조업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 핵심 성장축이다. 현대자동차 등 앵커기업의 투자와 상용차·특장차, 농·건설기계, 탄소소재·아미노산 등 기존 제조기반에 퍼지컬AI 기술을 접목해 로봇 핵심부품부터 AI 자율공장, 실증·인증까지 이어지는 산업생태계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전북 제조업을 기존 생산 중심 산업에서 AI와 로봇이 결합된 첨단 제조산업으로 전환하고, 전북을 퍼지컬AI·로봇의 연구개발과 제조, 실증을 아우르는 국가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농·생명바이오는 전북의 대표 산업인 농생명 분야를 AI·바이오·ICT와 결합해 고부가가치 첨단산업으로 확장하는 전략이다. 푸드테크와 고기능 식의약품 바이오소재, 바이오의약품, 방사성의약품 등을 집중 육성하고 연구개발부터 비임상 상용화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산업생태계를 구축한다.

이번 성장엔진 확정에 따라 정부는 재정과 금융, 세제, 제도, 기술, 인력, 인프라 등 7대 분야의 지원 패키지를 성장엔진과 연계해 지원할 방침이다. 전북자치도는 이를 적극 활용해 기업

투자와 대형 연구개발, 산업인프라 구축, 전문인력 양성으로 이어지는 핵심 프로젝트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특히 전북자치도는 이번 성장엔진 확정을 새로운 산업전환의 출발점으로 삼아 올 하반기까지 성장엔진별 기업 투자수요와 R&D, 인프라, 인력양성을 연계한 산업별 성장엔진 육성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여기에 새만금을 중심으로 로봇·수소 분야 메가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정부가 추진 중인 메가특구특별법 에 따라 기업투자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선제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양선화 전북자치도 미래첨단산업국장은 "이번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전북의 3대 성장엔진이 최종 확정된 것은 전북이 가진 산업기반과 기업투자, 미래 성장 가능성을 국가 성장전략 속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중요한 성과"라며 "이제는 선정 자체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기업투자와 산업 성장, 양질의 일자리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린수소와 첨단로봇, 농·생명바이오는 전북의 확실한 성장동력으로 키워 산업의 체질을 바꾸고 청년들이 선호하는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가겠다"며 "이번 성장엔진 확정이

전북의 산업 성장에 그치지 않고 지역 경제와 도민의 삶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이원택 도지사는 "5극 3특을 비롯한 새로운 균형성장 전략을 마련해 주시고, 전북의 미래산업과 성장 가능성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이재명 대통령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 지사는 "전북이 생각하는 지방중도 성장의 핵심은 지역이 가진 강점에 기업투자를 더해 새로운 산업을 만들고, 그 성과를 일자리와 소득으로 지역에 남기는 것"이라며 정부의 5극 3특 성장엔진과 연계해 그린수소·퍼지컬AI·농생명바이오는 새로운 성장축으로 키워면서, 네 가지 전략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가 밝힌 네 가지 전략으로 현대차 새만금 투자, 로봇·수소 미래 산업 생태계로 확장, 전북을 '서남권 반도체의 인재 및 소부장 핵심거점'으로 육성,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확대, 새만금 국가 차원 헬스산업클러스터 조성 등이다.

이원택 도지사는 정부가 특구와 규제, 기술개발과 실증, 국가 인프라를 뒷받침해 준다면, 전북은 기업투자를 청년의 좋은 일자리와 지역기업의 성장, 도민의 소득으로 연결하는 체감 성장으로 만들어내겠다고 지역의 성장엔진이 대한민국의 성장엔진이 되도록, 전북이 먼저 성과로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社 告

참신한 인재를 찾습니다

인간중심·도덕중심·지역중심을 추구하는 전주매일신문사가 바른마음·바른생각·바른행동에 열정과 패기가 넘치는 참신한 인재를 초대합니다.

구 분	모집인원	자 격 조 건
지역주재기자(김제)	0명	일간지 근무 경력자 우대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자

▲ 접수기간 2026년 8월 31일까지

▲ 제출서류 이력서 1통, 자기소개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 전형방법 1차 서류전형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접 수 처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서노송동)
문의 063-288-9700(본사총무팀)

전주매일

전북권 첫 산재전문병원 익산 건립, 예타 대상 선정

치료부터 직장 복귀까지 '원스톱'... 원정 진료 설움 덜어내

1273억원 투입해 200병상 규모 종합병원 건립... 재할 거점

시, 전북자치도·노동부·정치권과 공조 유지로 적극 대응

익산시가 원정 진료를 떠나야 했던 전북권 산업재해 근로자들의 숙원을 풀 기틀을 마련했다.

28일 '전북권 산재전문병원 익산시 건립 사업'이 기획예산처 재정투자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2분기 정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사업으로 최종 선정됐다.

2024년 1월 국회 예산 심의 끝에 타당성 연구용역비 2억원을 확보하며 첫 발을 댄 지 2년여 만에 국가사업 추진을 위한 가장 결정적인 관문을 넘어선 것이다.

현재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산재전문병원은 전국에 11개소가 자리 잡고 있지만, 전북권에는 단 한 곳도 없다. 이로 인해 도내 아급성기(회복기) 산재 환자들은 타 시·도로 장거리 통원을 감수하며 막대한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겪어왔다.

이번 예타 대상 선정으로 익산시 일원에 총사업비 1,273억원을 투입하는 2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급 산재전문병원 건립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병원이 들어서면 응급처치와 급성기 수술은 물론 집중 재활 치료와 사업장 적응 훈련, 직장 복귀 지원까지 한 곳에서 이뤄지는 '원스톱 전문 재활 의료 서비스'가 본격 가동된다.

익산이 전북권 산재전문병원의 최적지로 낙점된 배경에는 독보적인 광역 교통망과 배후 수요가 자리 잡고 있다.

KTX 철도망과 서해안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가 교차하는 익산은 전주, 군산, 김제, 완주 등 전북 인구의 77%가 집중된 도내 북부권의 중심부다. 또한 인근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전주 탄소소재 산업단지, 완주 테크노밸리 등 대규모 산업벨트의 의료 수요를 신속히 흡수할 수 있다.

익산시는 앞으로 전북자치도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을 비롯해 정치권과 긴밀한 공조 체계를 유지하며 예비타당성조사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사업 계획 구체화와 행정적 지원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익산=이재준기자

전북의 미래 대한민국의 새만금



전주매일 캠페인